

박여범 시인 첫 번째 문학평론집

‘문장에 대한 감상과 다양한 해석은 독자의 몫이다’ 출간

문학평론집 '문장에 대한 감상과 다양한 해석은 독자의 몫이다' (부크크)가 출간됐다. 시와 평론을 통한 다양한 글쓰기에 열정이 넘치는 박여범 시인의 첫 번째 문학평론집이다. 박 시인은 평론에 대하여, 예술작품이나 문화 현상 따위에 관한 그 가치, 우열, 유추 따위를 논하여 평가하는 일련의 작업이라는 기본적인 정의를 상기시켜준다.



박여범 시인의 첫 번째 문학평론집 '문장에 대한 감상과 다양한 해석은 독자의 몫이다'.

이처럼, 학자들에 의해 평론에 대해 여러 가지로 논의가 있었다. 그렇지만, 평론에 대한 정의를 내리거나 어려운 문제다. 일상에서 평론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평론은 자연이나 삶에 대하여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을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글임을 강조한다. 서평(書評, book review)은 일반적으로 간행된 책을 독자에게 소개할 목적으로 논평(論評, comment)이나 감상(感想, impression) 등을 쓰는 문예 평론의 한 형식이다. 일반 문자 표현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서평으로 내용이 나오는 구두 설명(주로 TV, 라디오 등) 등도 보조 개념으로 경향이 있음을 아셔야 하고 있다.

이 책은 '평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눈에 들어온 문장을 읽고, 또 읽고, 읽어 보기를 권장한다. 그러면서, 문장 하나하

나를 독자의 눈과 가슴에 담아주기 위해 수많은 언어의 조합과 사투를 펼쳤을 작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독자의 몫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인간적인 뿌리에서 시작하여 사회문화의 보편적인 목소리를 찾기 위한 작업을 우리는 평론가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원표, 느낌표, 물음표, 마침표 같은 형식은 필요 없이,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가 글로 표현된 문장을 처음으로 만날 때가 있기 때문임을 전제한다. 그것이 어렵고 쉬운 문제를 떠나 문장에 대한 감상과 다양한 해석은 독자의 몫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독자의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적은 것에서 큰 것으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깊이를 더해가면서 공통의 위상과 건강한 사회적 호흡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처럼, 사회문화의 보편적인 목소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글로 읊조렸을 작가의 마음이 따사하다.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우리는 지금도 만나고 있다. (박주용 시인의 사상이 떠난 후, 눈사울이 붉다/박성우 시인의 외판 강마을, 자두나무 정류장이 있다/이용욱 시인의 섬진강 변을 바람과 함께 걷다/손준식 시인 나의 고백은 민들레 흩சி 되고/박여범 시인의 시뿔가 꽃피는 '나 나무/김영석 시인의 아버지가 심은 나무 길/송태중 뼈꾸기는 이렇게 울었다/최재선 교수(한일장신대) 누구에게나 그때 있었다) (2부) 삶은 적응이고 해석이다. (3부) 생각이 바뀌면 답이 있다. (4부) 소통은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5부) 무엇이든 다 읽지 말고 반은 남겨두자 등이다.

박여범(시인 문학박사 문학평론가) 작가는 충북 옥천 청산 출생으로 시산백 특별회원, 전북문인협회, 남원문인협회 한국사진문학협회(서울대카시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남원의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용복중학교 교감이다.

/김윤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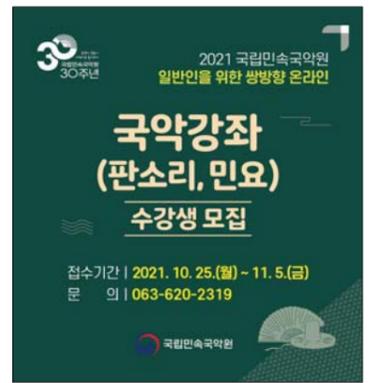
쌍방향 온라인 국악강좌 수강생 모집

국립민속국악원, 25일~11월 5일까지 판소리·민요반 각 15명 접수

국립민속국악원(왕기석 원장)은 코로나19 시대 일반인들이 국악을 쉽게 접하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쌍방향 온라인 국악강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악강좌는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며, 개설과목은 판소리반, 민요반 각 15명을 모집하며, 만 18세 이상 일반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수강료는 무료이고, 접수기간은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로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http://namwon.gugak.go.kr)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강화 기간은 11월 6일부터 매주 토요일(총 7회)로, 민요반은 1시 30분, 판소리반은 3시 30분부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며, 판소리반은 김수영 단원이 ▲홍보가 중 돈타령을, 민요반은 양은주 단원이 ▲진도아리랑 ▲동해바다 ▲신벚꽃이를 수업하고, 수업종료 후 수강생 전원에게는 기록음반 ▲춘향가 난대목을 증정



하고 출석 70%이상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을 발송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문화재단, 전주마을동심박람회 개최

(재)전주문화재단(대표 백옥선)은 23일 팔복 예술공장에서 '2021 전주마을동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주마을동심(洞心)박람회는 전주문화재단과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이 공동 추진한 마을 술사 양성 교육의 결과물을 영상 및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 전시하는 박람회로,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날 전주 35개 동(洞)의 문화자원을 알리는 주민 해설사인 '마을술사'가 참여하는 이야기 콘텐츠 박람회로, 전주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를 한곳에 모아 전주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4개의 책선, 전시 4회의 공연, 13개의 체험부스가 마련됐다.

전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전주마을동심박람회를 통해 전주 마을의 숨겨진 매력을 만나고, 마을 이야기로 소통하며 즐기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사전예약은 팔복예술공장 홈페이지(www.palbokart.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전주문화재단 담당자(070-7711-37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최기우 작가, 어린이희곡 출간

'뽕뽕뽕 방귀쟁이 뽕 함마니' 동명 국악극 책으로 세내

은 가족이 소리 내 함께 읽으면 더없이 좋을 희곡 한 편이 출간됐다.

최기우 작가가 쓴 어린이희곡 '뽕뽕뽕 방귀쟁이 뽕 함마니'가 그것이다.

작가에 따르면 매년 두 번 바닷물이 갈라져 길이 생기는 전라남도 진도의 신비한 현상과 영등할매 설화에서 착안해 쓴 작품으로, 2017년 5월 국립남도국악원에서 초연된 이후 지난해까지 경주·광주·김해·부산·순천·전주·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공연된 동명의 국악극을 보거나 읽기 쉽고 공연하기 편하게 다시 썼다.

관객들이 무대뿐만 아니라 작품을 책으로 접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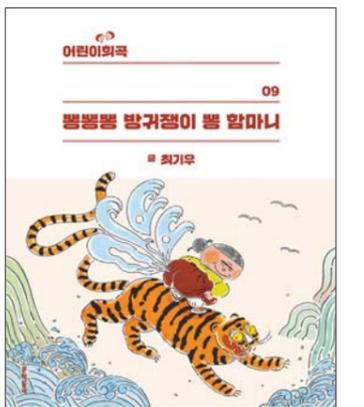
특히, 진도 지역 사투리의 차진 맛, 밀고 당기듯 주고받는 대사와 몸짓의 신명, 곳곳에 부러 둔 익살과 해학, 노랫말에 가락을 붙여 보는 데서 오는 재미가 아이들을 현대

적으로 해석된 전통극의 세계로 섬뜩 다가서게 한다.

작가 최기우는 20년 넘게 연극, 마당극, 창극, 창작판소리, 음악극, 풍물극, 키타타 등 다양한 형식의 무대극으로 아동, 청소년, 성인 관객을 만나 왔다. 무대에 올린 작품만 100편 이상. 더불어 그가 사는 전북 지역의 인물과 설화, 역사와 언어, 민중의 삶, 흥과 콘텐츠를 소재로 한 집필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최기우 작가는 "어린이들이 희곡 문학을 즐겁게 경험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쉽고 재미있게 연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등장인물과 장면을 더하고 다듬었다"면서 "전체 이야기는 4막 11장이지만, 하나의 막으로도 충분히 독립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책은 2015년 초등 국어 교육과정



개정 이후 '연극 단원'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아이들이 한 권의 책이 지닌 즐거움과 감동을 온전히 경험하고, 직접 이야기 속 인물이 되어 보며, 함께 연극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소통하며 협동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선보인 어린이들을 위한 희곡이다.

/장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문화행사 '은팔찌 만들기' 체험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10월 문화가 있는 날 문화행사로 금속공예 '은팔찌 만들기'를 오는 30일 오후 2시와 4시 박물관 내 열린 공간 앞에서 두 차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주박물관이 소장한 '가야 장신구 은팔찌(남원시 두리리 5호 무덤)' 유물과 관련해 기획했으며, 예부터 장신구로 활용되던 은팔찌를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

된다. 특히 귀금속에 대한 강연을 들은 후 팔찌의 사이즈를 측정하는 법과 손으로 직접 각인을 넣는 기법, 체인을 연결하는 법 등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선착순 24명(14시 12명/16시 12명)을 모집하며, 22일~27일까지 전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백제역사유적지구, 문화의 꽃을 피우다' 전시회

16~29일까지 벨기에 안트워프 Love2Arts 갤러리서 진행

(재)백제세계유산센터는 한국-벨기에 수교 120주년 기념의 해를 맞아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벨기에의 항구도시 안트워프에 위치한 Love2Arts 갤러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가치를 알리는 전시회를 열고 있다.

백제가 펼친 웅성한 문화를 품고 있는 백제역사유적지구를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일본, 미국 등 6개국에서 연차적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들었다.

전시회는 '백제역사유적지구, 문화의 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재)백제세계유산센터에 소장 중인 사진 31작품으로 구성했으며, 미디어아트 상영 공간과 백제역사유적지구 관련 책자 및 그림책들로 구성된 백제서고를 조성했다.

더불어, 일러스트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한 포토존, 연등 만들기 체험, 백제복식 체험, 탁본 체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시식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관객의 흥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벨기에 전시에 앞서 주태국 한국문화원에서

3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4개월 동안 전시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11월 8일부터 27일에는 주 터키한국문화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회와 관련,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이우성 이사장은 "이번 백제역사유적지구, 문화의 꽃을 피우다 전시를 계기로 120년간 이어 온 양국의 문화교류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대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지였던 백제의 문화를 많은 분들이 접해볼 수 있게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에서 전시회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 온라인 공연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관장 이재정)이 준비한 10월의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타악연희원 아취의 ICT타악퍼포먼스 히트스미고'가 오는 26일 온라인 공연으로 찾아온다.

'ICT타악퍼포먼스 히트스미고'는 공연예술과 ICT(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 단소북, 미디어 북의 만남으로, 재기발랄 군악대의 최충우를 해외 원정기를 유쾌하고 코믹하게 그린 타악 퍼포먼스를 ICT를 결합해 만나볼 수 있다.

(사)타악연희원 아취는 전통 타악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의 만남, 동양과 서양의 만남을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인 흥과 신명으로 풀어내는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를 넘어 전국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팀이다.

무관중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이날 오후 7시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담당자



(063-291-7245)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은혜상사(주)

사회적기업

작업복 단체복

여성기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기념품

안전화 안전용품

사무용 가구 파티션, 앵글, 선반 제작

명찰, 로고 각종 인쇄

대표전화 063)227-4610

NAVER 은혜상사(주) >

팩스번호 063)227-4619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03, 1층